

# 07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 몸으로 놀아 보자!





##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5세 유아	2019년 4월~6월	종이 놀이 공간

**〈교실 전경〉**  
 교실에는 종이로 놀이하는 공간 외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게임이나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블록 놀이하는 공간, 달팽이와 물고기를 키우는 공간 등이 있다. 유아는 놀이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햇님반 교실 미술 공간에는 늘 A4 용지와 도화지, 색종이가 있다. 유아는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고, 색종이로는 접기 놀이를 주로 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종이로 다양하게 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박스, 골판지, 얇은 종이, 전지, 종이를 등을 제공하였다.



- 유아가 주어진 박스로 놀이한다.
- 유아가 길고 가는 종이를 선택하여 놀이한다.
- 유아가 골판지를 선택하여 놀이한다.
- 유아가 머메이드지와 얇은 종이를 선택하여 놀이한다.
- 교사가 제공한 전지로 놀이한다.
- 교사가 제공한 골판지 롤로 놀이한다.

〈유아 놀이 경험〉

### 장면 1. 박스로 놀기



유아는 가게 앞에 있던 박스 하나를 교실로 가져온다. 유아는 이 박스가 단단한 것을 보고 나무 박스라고 생각한다. 박스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보니 손가락이 썩 들어갔다. 그러자 유아는 박스를 뜯어보고, 손톱으로 긁는다.

정우: (박스를 긁으며) 톱질하는 것 같아.  
 예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정우: 이거 벌집 같아!

박스를 손끝으로 긁을 때는 작은 조각이 되어 떨어지고, 손으로 잡아당길 때에는 박스의 일부가 긴 끈처럼 달려 나오기도 한다. 하나의 박스에서 작은 조각 종이, 꼬불꼬불 종이, 넓고 얇은 종이, 돌돌 말린 종이 등이 만들어진다.

박스는 완전히 분해된다. 정우는 박스에서 나온 여러 크기의 종이 조각들을 던지면서 “종이나라 전쟁이다.”, “공격하자.”라며 놀이한다. 그 옆에 있던 예은이는 “나는 꿀벌.”, “나는 말벌.” 하며 놀이한다. 평소 신체 놀이를 즐겨하지 않는 대경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각 종이를 OHP에 올린다.



### 장면 2. 길고 가는 종이로 놀기

유아는 종이장에서 길고 가는 종이를 꺼내 놀이한다. 길고 가는 종이로 놀던 대경이가 종이 뭉치를 들고 손으로 찢기를 시도한다. 얇다고 생각한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가위로 작게 자르기 시작 한다. 작게 잘린 종이가 많아지자 그것을 위로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모아 위로 뿌리기를 반복한다.





종이 조각이 바닥을 가득 채우니 교실은 눈이 온 마을이 된다. 잠시 후 대경이와 정선이는 그 위에서 해엄을 친다.

“여기는 수영장이야.”

대경: 선생님, 눈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떨어져요.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요.  
대경: (정선이에게) 지금 눈 내리는 거야. 봐 봐.  
정선: 와! 눈 더 만들어야지. 우리 눈 더 만들자!

### 장면 3. 골판지로 놀기

유아는 종이 장에서 골판지를 꺼내 놀이 한다. 영준이는 골판지의 결을 생각하지 않고 접는다.

영준이는 “선생님, 종이가 구겨졌어요.” “자꾸 찢어져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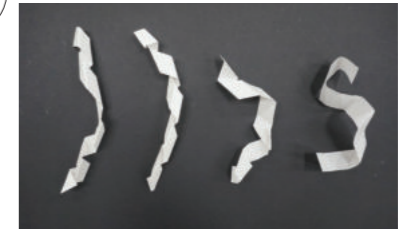
놀이를 하면서 영준이는 골판지의 결대로 곡선을 만들고 이것을 평평한 종이에 고정하여 입체물을 만들어 본다.

영준: 여기 공을 놓고 안 떨어지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망원경처럼 볼 수도 있어요.  
교사: 어디까지 보여?  
영준: 저기 멀리까지 보여요.



### 장면 4. 머메이드지와 얇은 종이로 놀기

유아는 종이 장에서 머메이드지를 꺼내 놀이한다. 준호는 머메이드지를 꼭꼭 눌러 접은 후 바닥에 놓는다. 종이 한 쪽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듯 누른다. 접은 종이가 펼쳐지자, “선생님, 종이가 날아가요.”라고 한다. 그리고 종이를 입에 대고 불어서 날린다. 여러 종류의 종이를 불어서 날리던 중, 얇은 종이가 돌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서준: 오...!  
이렇게 입으로 하니까 불어져요. 후~.  
교사: 입으로 부니까 어떻게 돼?  
서준: 종이가 돌아가요.

### 장면 5. 큰 전지로 놀기

교사는 수영장처럼 만들어 달라는 유아의 요청에 따라 큰 전지를 바닥에 깔아주고 유아에게도 전지를 제공한다. 유아는 큰 전지를 온몸으로 흔들거나 구기거나 찢으며 놀이한다.



혜연: 민우야, 너 이거 찢어.  
 교사: 오!  
 혜연: 소리가 완전 천둥 번개다!  
 서진: 완전 천둥 번개야!  
 혜연: 선생님, 옛날이<sup>1)</sup> 됐어요.  
     이 종이 정체가 옛날이!  
 교사: 그 종이 정체가 옛날이었어?  
 영준: 구겨 가지고, 으...  
 민욱: 이불 같아요.  
 영준: 종이나라 패배했다.  
     선생님, 종이나라가 패배했어요.  
 교사: 종이나라가 패배했어?  
 영준: 네. 다 찢어졌어요.  
 서진: 태풍이 분다. 완전 신나요!



1) '옛날이'는 유아가 종이 특성을 살피며 붙인 이름으로서, '구김지'가 할아버지처럼 꾸글꾸글해서 '옛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장면 6. 골판지 롤로 놀기**

교사는 크고 단단한 종이로 놀고 싶다는 유아들의 요청에 따라 골판지 롤을 제공한다. 재현이가 교실에 세워 놓은 골판지 롤을 바닥에 눕히려 애를 쓴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자 친구 두 명을 불러와 바닥에 눕힌다. 재현이는 롤을 굴려 바닥에 펼친다. 교실 바닥 가득 펼쳐진 골판지 위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엎드려 엉금엉금 기기도 한다. 평소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재현이는 롤 위에 올라타서 흔들흔들하다가 온몸으로 롤을 굴린다.



“이걸로 자동차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굴러가는지 실험해 볼게요!”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에게 종이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쓸 때 사용하는 자료이다. 색종이가 주로 종이접기에 사용되는 것처럼 각 종이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종이는 제한적인 범위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는 유아에게 다양한 특성의 종이를 제공하여 유아가 종이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종이 박스를 접한 경우는 넓은 면과 면 사이에 겹겹이 붙어 있는 종이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손끝과 손가락을 움직여 탐색하고 박스를 굽어 작은 종이 조각을 만들어본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작은 조각 종이, 돌돌 말린 종이, 끈처럼 긴 종이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우연히 만들어진 다양한 종이로 유아는 즉흥적으로 종이를 던지는 전쟁놀이를 한다. 또한 예은이는 우연히 찾아낸 벌집 모양으로 꿀벌이 되는 놀이를 한다. 친구들이 온몸으로 전쟁놀이와 꿀벌처럼 날아다니는 놀이를 할 때, 평소 신체 놀이를 즐기지 않는 대경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OHP 위에 박스에서 떨어진 종이 조각을 올려놓는다. 종지와 빛이 만나 벽면에 비친 모습에서 벌집 모양을 발견한다.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기쁨을 느낀다. 박스라는 종이의 특성과 재미가 개별 유아의 이전 경험과 만나 새로운 놀이로 변화한다.

대경이는 길고 가는 종이를 더 작은 종이로 만드는 것에 몰입한다. 작은 종이가 많아지자 대경이는 종이를 하늘로 뿌린다. 뿌리고 떨어지고, 떨어진 종이를 모으고 또 다시 뿌리는 것을 반복한다. 대경이는 종이 조각을 눈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대경이의 상상은 정선이에게 영감을 주고, 대경이의 상상에 정선의 상상이 더해져 종이로 가득 찬 공간이 눈 쌓인 마을로, 수영장으로 변화한다. 유아는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울퉁불퉁 골이 있는 골판지를 손에 쥔 유아는 골판지를 찢고 접고 펴려 보면서 골판지는 잘 구부러지면서도 힘이 있고 골판지의 결과 반대로 접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골판지 자체의 성질을 탐색하고 발견한 영준이는 골판지를 게임할 수 있는 도구와 망원경으로 변형시킨다.

머메이드지를 꺾어 접은 준호는 접힌 종이를 손으로 튕기며 ‘종이가 날아가요.’

라는 언어적 **표현**을 한다. 서준이는 '종이가 날아간다.'라는 준호의 표현을 듣고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입으로 불어서 날리는 **실험**을 한다. 얇은 종이를 접어서 입으로 불자 종이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유아들은 얇은 종이가 돌면서 날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고 즐거워한다. 정우는 서준이의 놀이에 **호기심**을 느끼고 **소통**하며 함께 놀이를 한다.

큰 전지를 접한 유아는 **온몸을 움직여** 전지를 흔들고 구기고 찢으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전지를 흔들고 구기면서 발생하는 소리와 모양의 **변화**를 **표현**한다. 종이를 흔들면서 나는 소리를 듣고 천둥 번개를 연상하고 구겨진 종이를 보고 주름을 떠올린다. 전쟁놀이를 즐기던 유아의 경험에서 찢어진 종이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크고 둥근 종이 롤을 놀이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종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놀이(그리기, 자르기, 접기, 찢기, 구기기 등)를 초월한다. 크고 둥근 종이 롤과 평소 자동차에 대한 재현이의 관심이 만나 종이 롤이 자동차 바퀴가 되는 **상상놀이**가 시작된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는 유아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서로 다른 크기, 모양, 재질 등의 종이와 만나면서 **다채로워**진다. 놀이 자료는 유아의 놀이를 **변화**시키고 유아의 놀이는 놀이 자료를 **변형**시킨다.

####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종이의 특성으로 놀이하고, 놀이하며 다시 종이를 변형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종이와 한 몸이 되어 노는 유아의 놀이는 교사가 상상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유아의 유능성을 본 순간이었다.

#### 교사 이야기

처음에 종이를 주고 자유롭게 놀라고 했을 때, 햇님반 유아는 종이 위에 그리고 쓰고 접는 방법에만 얽매어 있었어요. 종이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을 물었을 때, 한 유아가 신문을 찢고 날려 본 경험을 이야기하자 다른 유아는 “장난꾸러기네. 신문은 접어야 하는 건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자유롭게 놀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자 한 유아는 “저는 종이를 그렇게 놀아도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라는 말도 했어요.

좀 더 자유롭게 종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리기 도구를 교실에서 전부 치웠어요. 그러자 유아가 불안한지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리기 도구를 찾았고, 저에게 그리기 도구를 다시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유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종이는 그림만 그리거나 접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주로 날려 보내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 유아는 종이를 조금씩 찢고 구기고 몸에 감으며 전보다 자유롭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던 유아가 종이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걸 들었어요. 딱딱한 종이의 강도에 따라 ‘딱1’, ‘딱2’, ‘딱3’, 물결이, 주름이, 털복숭이, 옛날이, 울퉁이, 혈령이, 보들이 등의 이름을 붙였는데, 유아가 종이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유아의 관찰 기록인 놀이 사진을 벽면에 게시해 주고,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한편으로는 유아가 종이를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유아가 할 수 있는 상상의 한계를 넘어 다채로운 놀이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놀이에다 종이를 함부로 낭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종이 벽돌 블록과 나무 블록으로 놀기

유아는 블록의 다양한 속성을 인식하면서 다르게 놀이한다.

안전을 이유로, 연령을 이유로 쌓기 놀이 공간을 한두 가지 블록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유아는 종이 벽돌 블록으로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가?

유아는 나무 블록으로 어떻게 놀이하고 있는가?

블록의 종류가 다양해진다면 유아의 놀이는 어떻게 달라질까?



###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3세 유아가 종이 벽돌 블록과 나무 블록 등 여러 블록으로 놀이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 ▲▲이와 함께 종이 벽돌 블록으로 길게 이어 붙인 뒤 교사에게 달려와 손을 교사 머리에 얹고 교사의 고개를 돌리려 애쓰며 말한다.

\*\* 선생님 여기 봐 봐요.  
우리가 집 만들었어요.

T: 와! 이번에 만든 집은 좀 다르네?

●●: 우리가 집 길게 만들었어요.

T: 그러게. 정말 길게 만들었다!

\*\* 우리 집이야. 방 세 개나 있어.

●●: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돼.  
내가 터널(문)도 만들었어.

T: 방도 세 개나 생기고, 문도 있네?  
예전에는 문이 없었는데.

우리집에서 생긴 일		가평나눔반(만 3세)		
행차	활동놀이	기록일자	기록자	일**
관찰유아		2019.06.27		
사건형태	종이벽돌블록으로 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원시료블록을 얹으며 공간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종이벽돌블록과 등니트블록이 함께 쓰여진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놀이할까? 두 가지 종류의 블록을 제시하고 놀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기록	이는 이, 와 함께 종이벽돌블록으로 길게 이어 붙인 뒤 교사에게 달려와 손을 교사 머리에 얹고 교사의 고개를 돌리려 애쓰며 말한다.			
및	선생님 여기 봐 봐요. 우리가 집 만들었어요. T: 와~ 이번에 만든 집은 좀 다르네? 우리가 집 길게 만들었어요. T: 그러게. 정말 길게 만들었다! 우라 집이야. 방 세 개나 있어. 여기 문으로 들어가면 돼. 내가 터널(문)도 만들었어. T: 방도 세 개나 생기고, 문도 있네? 예전에는 문이 없었는데.			

### 놀이 흐름 따라가기

<b>누가</b>	<b>언제</b>	<b>어디서</b>
3세 유아	2019년 6~7월, 오전 놀이	쌓기 놀이 공간

#### 장면 1-1. 종이 벽돌 블록으로 놀기 - 쌓고 무너뜨리기

쌓기 놀이 공간에서 몇 명의 유아들이 종이 벽돌 블록을 탐색하다가 높이 쌓아 보는 놀이를 한다. 한 명이 쌓고 옆 친구가 함께 쌓아 올리다가 무너지자 까르르 웃는다. 무너진 종이 벽돌 블록을 다시 쌓아 올리며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를 반복하고 있다.



윤성: 자꾸 높이 쌓으면 쓰러져.  
 다은: 쓰러져도 괜찮아. 아무도 안 다쳐.  
 교사: 쓰러지면 안 다쳐?  
 다은: 종이 벽돌 블록은 쓰러져도 말랑말랑해서 안 다쳐요!

지나: 부수지마!  
 자꾸 무너지니까 불편해.

반복적으로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를 지속하다가 한 유아들이 불편하다고 하자 놀이는 중단되고, 유아는 다른 공간으로 가 버린다.



#### 장면 1-2. 종이 벽돌 블록으로 놀이기 - 집끼리 연결하기

어느 날 쌓기 놀이 공간에 모인 몇 명의 유아들이 폐쇄 공간의 집을 각자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집을 만들다 보니 점점 서로의 집이 가까워지고 경계가 무너지면서 함께 공동의 집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TV, 냉장고 등을 만들며 함께 놀이한다.



준우: 선생님! 우리 집 만들어요.  
 윤성: 이건 TV야.  
 지오: 히히. 방구 TV같다. 이거랑 여기랑 다.  
 다은: 냉장고에 어묵도 있어!

#### 장면 1-3. 종이 벽돌 블록으로 놀기 - 냉장고에서 집으로

어제 공동의 집을 만들며 놀이를 했던 유아들이 오늘은 함께 냉장고를 만들며 놀이를 시작한다.



지나: 이건 냉장고야!  
 냉장고는 내 키보다 더 커야 해.

찬영이의 블록이 올라가는 순간 블록이 무너져 버렸고, 찬영이와 다은이는 속상해하지만 지나는 무너지는 걸 보며 즐거워한다.

찬영이와 다은이가 다른 공간으로 가버리고 지나 혼자 남았다. 잠시 뒤, 준우와 지오가 놀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놀이가 시작된다.



지나: 이거 달팽이 집이에요~ 여기 아래에는 달팽이가 있어요!  
지오: 이거는 공룡성이에요!  
준우: 아래에는 달팽이가 살고, 위에는 공룡이 살아요!

### 장면 2-1. 나무 블록으로 놀기 - 주유소 옆 세차장

새로 들어온 나무 블록에 관심을 보이던 온울이가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옆에서 준우가 충전소를 만들다가 이것이 온울이의 주차장과 연결되면서 놀이 공간은 쌓기 놀이 공간을 넘어서서 확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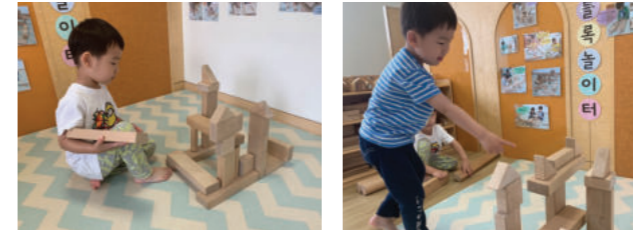
주차장을 만들던 온울이는 주차장 앞에 카드 결제하는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세차하는 곳도 함께 만들었다. 세차하는 곳에는 세차 기계의 문과 지붕이 생겼고, 블록을 세척 솔로 사용하여 자동차를 세차하는 등 세차장 놀이를 실감나게 한다.



온울: 세차장 문 열어요! 이제 차 닦을게요! 이제 문 닫아요!

### 장면 2-2. 나무 블록으로 놀기 - 더 복잡한 주차장

다음 날 온울이는 어제 놀이하던 주차장을 다시 만든다. 어제 만든 주차장보다 더 복잡한 형태이다. 지나가던 승원이 주차장에 관심을 보인다.



승원: 온울아 이건 뭐야?  
온울: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 주차하는 주차장이야.  
승원아! 주차장 만들 거야?  
승원: 온울이 주차장 멋있다!

잠시 후, 온울이가 주차장을 부수고, 승원과 함께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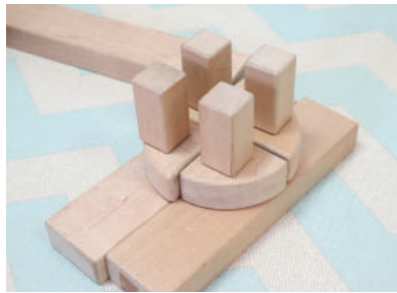
온울: 승원아! 이건 문이 엄청 큰 주차장이야. 우리 할아버지 주차장이지.

장면 2-3. 나무 블록으로 놀기 -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유아는 나무 블록의 작은 조각들을 활용하여 놀이에 필요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소품들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다.

온울이와 시언이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 축하 놀이를 한다, 그러던 중 온울이가 갑자기 나무 블록 조각을 모아 케이크를 만든다.

찬영이가 친구들과 블록으로 길을 만들어 놀이하던 중 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만든다.



온울: 생일 축하하려면 케이크가 있어야 돼. 이걸 촛불이야.  
시언: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시언 생일 축하합니다!  
온울: 응?

찬영: 자동차가 길 위로 이렇게 (손으로 허공을 저으며) 지나갈 거야.  
다운: 그런데 자동차가 엄청 크다.  
찬영: 여기 친구들이 다 타고 가려면 2층처럼 큰 자동차가 필요해! 애들이 얼른 타!

주말에 캠핑을 다녀온 준우가 블록을 하나씩 옆으로 나열하며 캠핑카를 만든다.

준우: 우리 집에 캠핑카 있어요. 그런데 캠핑카 안에는 뭔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어요!

준우: 캠핑카 안에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다운이는 과학 공간에서 키우는 장수풍뎅이를 지켜본 후, 쌓기 놀이 공간으로 와서 곡선 모양의 나무 블록을 골라내서 장수풍뎅이를 만든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성이라도 나무 블록으로 장수풍뎅이를 만든다.

윤성: 이렇게 하면 남자 장수풍뎅이지! 여기 앞에 뿔 달렸잖아.

장면 3-1. 종이 벽돌 블록과 나무 블록으로 함께 놀기 - 종이 벽돌 블록으로 집을, 나무 블록으로 가구를

몇 명의 유아가 쌓기 놀이 공간에 모여 종이 벽돌 블록을 이용하여 집을 크게 만들고 있다.



윤성이는 터널 모양의 문 만들기를 하고, 준우와 찬영이는 종이 벽돌 블록을 연결하여 폐쇄 공간을 만들었다.  
유아는 종이 벽돌 블록으로 집을 크게 만든 후, 나무 블록으로는 집을 받치는 보조물이나 가구를 만들었다.





장면 3-2. 종이 벽돌 블록과 나무 블록으로 놀기 -

“캠핑카 안에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찬영이와 친구들이 얼마 전에 책 속에서 보았던 캠핑카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다.



찬영: 캠핑카에는 모든 게 있어! 의자도 있고, 집에서 책에서 봤어! 침대도 있고 모든 게 있어!



캠핑카 놀이를 하던 유아 중 아린이가 갑자기 '물 이야기'를 꺼내며 캠핑카는 어느새 바다와 연결된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캠핑카를 바다 위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나무 블록을 물고기 팔로 사용하였다.



찬영: 이거는 물고기 팔(지느러미)이야!  
여기 바다 속이야!  
바다 속이라서 (캠핑카에)  
물고기 팔이 필요해!



아린: 이건 상어 안 보이게 가리는 거야!  
찬영: 상어 보이게 해줘!  
아린: 안 돼. 상어가 집으로 갔어!  
준우: 상어가 와야지 놀이할 수 있지?



찬영: 우와! 여기 밑에 막어도 보여!

## 놀이 경험 이해

###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종이 벽돌 블록으로 쌓고 부수기를 반복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자의 공간이 익숙해질 무렵 그 공간들을 연결하여 함께 공동의 집 만들기를 시작했고 집 안에 냉장고와 TV도 만들었다. 함께 놀던 유아가 떠나고 남겨진 냉장고는 새롭게 합류한 유아로 인해 집이라는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되면서 새로운 놀이가 되었다. 유아는 종이 벽돌 블록의 안전함과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몸**으로 공간을 경험하며 놀이를 **변형**시켰다.

며칠 뒤 교사는 나무 블록을 제공하였다. 나무 블록을 제공한 첫날, 유아는 나무 블록으로 이야기가 있는 세밀하고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유아는 주차장 옆에 세차장, 충전소, 카드 기계까지 만들어 연결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 매일 주차장 만들기 놀이가 반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차이가 있는 '더해짐'으로 놀이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아는 나무 블록을 활용하여 놀이 안에 필요한 세부 요소(소품)를 더하였으며, **즉흥적**으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나무 블록을 통해 실제화시켰다. 생일 축하 놀이를 위한 케이크, 친구들과 함께 타기 위한 2층 차, 캠핑카 등은 블록의 물성과 유아의 아이디어의 밀착된 관계를 잘 나타낸다.

나무 블록에 익숙해질 무렵 유아는 나무 블록과 기존에 익숙하게 놀았던 종이 벽돌 블록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아는 놀이에 따라 어떤 블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감각적**으로 창조하여 놀이를 풍요롭게 만들어 갔다. 종이 벽돌 블록으로는 커다란 집과 자동차 등의 큰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나무 블록으로는 소품을 만들어 작은 공간을 채웠다. 종이 벽돌 블록과 나무 블록을 적절히 사용하여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기도 했다. 다양한 블록으로 놀이한 경험은 유아의 **상상**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렇게 유아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놀이 속에 통합하고 연계하며 **상상**놀이를 즐겼다. 친구의 경험을 들으면서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즐겼다. 또한 여러 가지 **시도**와 **변화**를 위해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블록의 속성을 자신의 놀이의 목적과 필요에 맞게 감각적으로 활용하여 더욱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물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는 블록으로 어떤 놀이를 해야 할지, 어떤 블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지 않아도 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았다. 유아는 자신의 주도적인 표현을 즐겼으며 구성물의 균형, 정교함, 주변과의 어울림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 교사 이야기: 블록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생각

사실 다양한 블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린 3세 반이라 나무 블록보다는 종이 벽돌 블록을 더 자주 제공했었다. 종이 벽돌 블록은 모양이 균일하여 정리하기도 편리하고, 가벼워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무 블록은 사용 후 유아가 모양대로 정리하기가 어려워 교사가 정리를 도와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교구장에서 쉽게 쏟아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무게가 무거워서 유아들이 다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아직 어린 우리 반 유아에게 나무 블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두 가지 블록을 함께 제공하고 기록하면서 교사인 내가 걱정했던 안전에 대한 부분과 유아들이 정리를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은 바뀌게 되었다. 교사인 나는 유아들의 블록놀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블록이라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들만의 놀이 구성에 활용하는 3세 유아들의 유능함도 발견할 수 있었다. 3세 유아들은 각 블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놀이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블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각 블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유아가 경험한 것을 쉽게 떠올리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블록은 유아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 준다고 생각한다.



#### 교사 지원의 특징

교사는 놀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교사와 유아의 대화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기록물은 교실 벽면에 게시하여 유아가 볼 수 있게 하였다.

놀이 자료는 순차적으로 제공하였다. 유아의 관찰 기록인 놀이 사진을 벽면에 게시해 주고,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